

국제금융시장 11월 동향 및 12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심한용 (hyshim@kdb.co.kr)
 박지혜 (jh5702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11월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, 엔화 약세 등으로 상승, 12월은 시장의 美 금리인하 기대 회복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
- ◆ **(금리)** 11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, 12월 미국 금리는 하락세 지속, 유로존 금리는 박스권 내 등락, 일본은 기준 금리 인상 기대하에 상승 예상
- ◆ **(주가)** 11월 주요국 주가는 AI 버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, 12월은 美 금리인하 기대 회복에 따른 상승세가 예상되나 조정 가능성도 상존

□ 11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美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12월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, 한은과 인민은행은 각각 기준금리 및 대출우대금리 동결

- 美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금리인하 필요성 시사
 - 美 연방정부 셋다운이 종료(11.12일)되며 9월 고용지표 발표(11.20일), 비농업고용은 +11.9만명으로 예상치(+5.3만명)를 상회하였으나 과거 동기간 대비 부진한 흐름
 - * 1~9월 美 비농업고용 증가(만명, 누적치) : 373.2('22년) → 199.8('23년) → 138.4('24년) → 68.4('25년)
 - 셋다운에 따른 정부 데이터 부재로 금리인하 신중론이 우세하였으나, 월러 등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금리인하 필요성 언급*으로 금리인하 기대감 상승
 - * 월러 연준 이사는 노동시장 악화 증거가 있는 상황으로,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언급(11.17일)
- 한국은행은 금통위(27일)에서 기준금리 4회 연속 동결 (2.50%)
 - 물가상승률*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및 환율 상승**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
 - *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1.9('25.5월) → 2.2(6월) → 2.1(7월) → 1.7(8월) → 2.1(9월) → 2.4(10월)
 - ** 월말 원/달러 환율(원) : 1,390.1('25.8월) → 1,402.9(9월) → 1,424.4(10월) → 1,456.6(11.26일)
 - 이창용 총재는 대내외 정책 여건,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점검하며 추가 인하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,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언급
- 中 인민은행(20일)은 대출우대금리(LPR)를 6회 연속 동결 (1년물 3.00%, 5년물 3.50%)
 - 미·중 무역 갈등의 일시적 완화 및 '25년 경제성장률 목표(5%) 달성 가능성 등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금리를 동결
 -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 유동성을 확대하고, 물가 반등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언급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시사적인 물가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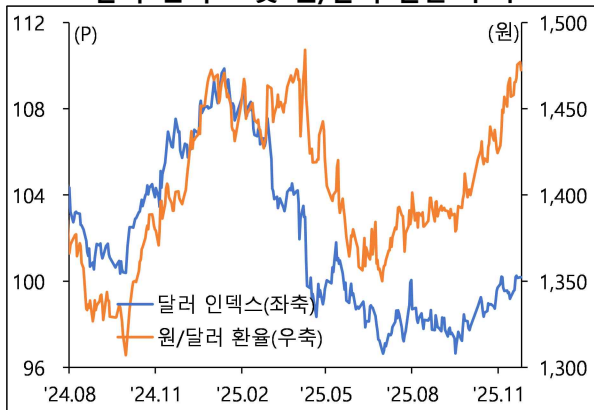
□ '25.12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12월 FOMC(9~10일) :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한 일부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필요성 주장 등으로 금융시장*은 금리인하 재개를 기대
* 연방기금금리선물예 반영된 12월 FOMC 25bp 인하 확률은 84.9%('25.11.26일)
- 유로존, ECB 회의(18일) 및 일본, BOJ 회의(18~19일) : 유로존은 목표치(2%)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상승률, 경기 회복세 등으로 금리 동결 전망, 일본은 엔화 약세**, 높은 물가상승률** 지속 등으로 25bp 인상 예상
* 유로존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% , yoy) : 2.0('25.6월) → 2.0(7월) → 2.0(8월) → 2.2(9월) → 2.1(10월)
** 월말 엔/달러 환율(엔) : 147.0('25.8월) → 147.8(9월) → 153.4(10월) → 156.4(11.26일)
***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3.3('25.6월) → 3.1(7월) → 2.7(8월) → 2.9(9월) → 3.0(10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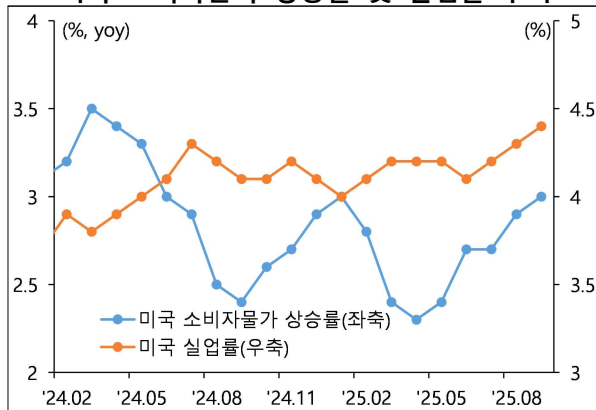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- (환율) 11월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, 엔화 약세 등으로 상승, 12월은 시장의 美 금리인하 기대 회복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
- 11월 원/달러 환율은 한·미 무역협정 후속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,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*, 엔화 약세에 대한 원화 동조 현상 등으로 상승
* '25.11.1~26일 간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서 12.7조원을 순매도
- 12월 원/달러 환율은 美 금리인하 기대 속에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, 외환 당국의 환율 개입 발언* 등으로 하락 전망
*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(11.26일)

달러 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 추이



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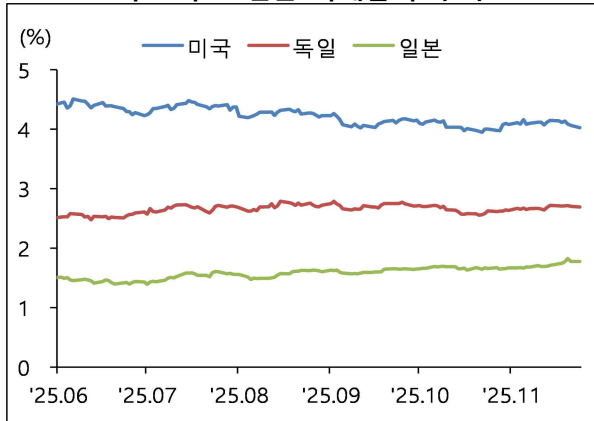


	'23년말	'24년말	'25.10월말	'25.11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294.5	1,472.5	1,424.4	1,472.4	+3.4%
달러 인덱스	101.47	108.09	99.70	100.18	+0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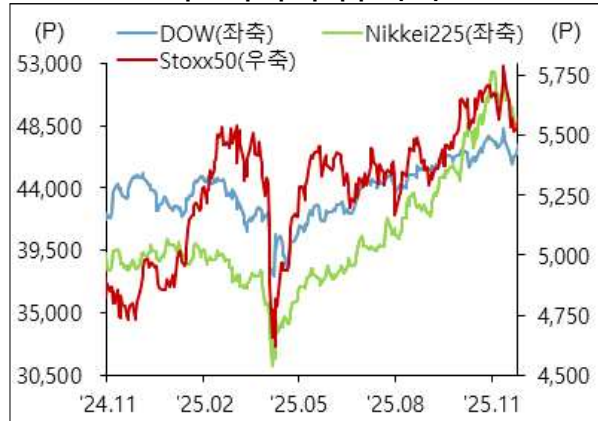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- (금리) 11월 주요국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, 12월 미국 금리는 하락세 지속, 유로존 금리는 박스권 내 등락,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 예상
 - 11월 미국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가 회복되며 하락*, 독일 금리는 박스권 내 등락, 일본 금리는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**을 반영하며 상승
 - * 미국 국채금리(% , 10년물) : 4.11(11.3일) → 4.11(11.10일) → 4.13(11.17일) → 3.99(11.25일)
 - **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약 21조 3,000억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 확정(11.21일)
 - 12월 미국 금리는 해시 위원장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 거론*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며 하락세 지속 예상, 유로존은 ECB 금리 동결 전망에 따른 박스권 예상, 일본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 및 국채 발행 확대로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
 - * 현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, 시장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해시 위원장이 임명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 및 확장적 통화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
- (주가) 11월 주요국 주가는 AI 버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, 12월은 美 금리인하 기대 회복에 따른 상승세가 예상되나 조정 가능성도 상존
 - 11월 주요국 주가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신중론, AI기업 과열 우려 등으로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,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반등하며 하락 폭 축소
 - 12월 주요국 주가는 美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, 고용, 물가 등 美 주요 경제지표 악화 가능성은 조정 요인

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

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

	'23년말	'24년말	'25.10월말	'25.11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3.897	4.533	4.097	3.996	△2.5%
독일채 10y	1.979	2.367	2.643	2.672	+1.1%
일본채 10y	0.623	1.101	1.656	1.805	+9.0%
다우존스	37,385.97	42,573.73	47,562.87	47,112.45	△0.9%
유로 Stoxx 50	4,521.47	4,869.28	5,662.04	5,573.91	△1.6%
Nikkei 225	33,169.05	39,894.54	52,411.34	48,659.52	△7.2%

자료 : Bloomberg